

주일 낮 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4:24)

오전 9:00	오전 11:00	인도 / 김동오목사
예배의 부름		인도자
■ 경배 찬송		다함께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ccm)		
■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기도	송수진집사 박병기장로	
성경봉독	인도자	
사무엘하 11:1-15(1-27)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교사중창단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호산나찬양대
설교	김동오목사	
"그 일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기도	다함께	
봉헌	다함께	
295. 큰 죄에 빠진 나를		
목회기도	설교자	
■ 결단의 찬양		다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ccm)		
축도	설교자	
■ 경건한 마음의 표시로 일어섭니다. ■ 다음기도 / I. 선상이집사 ■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II. 신재희장로 ■ 8월 4일 / 시 51:1-12, 삼하 11:26-12:13a, 엠 4:1-16, 요 6:24-35		

주일 오후 찬양예배

교육기관 여름행사 관계로
오후 찬양예배는 쉽니다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인도 / 김재중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코람데오찬양단
기도	정연자집사
성경봉독	레위기 16:29-34 인도자
찬양	자원자
설교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 김재중목사
기도	다함께
찬송	285.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다함께
축도	설교자
□ 다음기도 / 강은숙권사	

새벽기도회

새벽 5:00	인도 / 김재중목사
· 월 29일	열왕기하 17:13-23 사랑의 경고를 거부한 결과
· 화 30일	열왕기하 17:24-33 종교 혼합주의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 수 31일	열왕기하 17:34-41 언약의 하나님만 경외하며 따르십시오
· 목 1일	열왕기하 18:1-12 형통과 패망을 가르는 태도
· 금 2일	열왕기하 18:13-25 조롱과 선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 토 3일	열왕기하 18:26-37 악한 선동의 말에 침묵하는 지혜
· 일 4일	열왕기하 19:1-13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 새벽기도회 묵상 말씀은 Q.T 교재 <생명의 삶>(두란노) 해당 날짜 본문과 같습니다.	

설교 요약

“그 일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사무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반면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몰락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11장이기에 다윗이 정점에서 몰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다윗의 몰락이 시작될 무렵,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1:1에서 '그 다음해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유능한 지휘관들이 다수 있어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무궁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언약)도 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암몬과 전투 중이지만 암몬은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기에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전투에서 이기면 다윗은 암몬의 압박에 가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인 후 전리품이나 취해 오면 됩니다.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과오를 저지릅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신의 부하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4). 우리아는 다윗의 망명생활 초기부터 고락을 함께한 충성스런 다윗의 심복이었습니다(23:24,39).

다윗은 간음 중에서도 질이 나쁜 '권력에 의한 성 착취'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심복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3). 그 지점에서 부당한 호기심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율법은 간음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레위기20:10, 신명기22:22). 하지만 누가 왕을 사형에 처하겠습니까? 절대권력이 어느새 다윗을 부패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정신 차리고 그의 실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음죄와 살인죄는 속성상 진실을 말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간음과 살인죄는 처음부터 짓지 않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윗은 완전범죄를 꿈꿨습니다. 우리아가 휴가를 받아 밧세바와 동침하면 임신한 아기는 우리아의 아기가라 우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너무 경건했고 너무 충성스러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11).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새로운 죄,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더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압은 명령에 따르고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부패한 권력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27)'입니다.

- 오늘 주일오후찬양예배는 교육기관 여름행사 관계로 쉽니다.
- 구역 여름방학 필독서 :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화영 - 소감문 나누기 : 김재중목사께 (카톡 혹은 친필로) 보내주세요.
- 2024년 2학기 장학생 신청 : ~ 8월 10일(토)까지
 - 자격 : 우리 교회 출석 대학생
 - 제출 서류 : 장학생 신청서(본인 제출, 교회 홈페이지서 다운)
- 영유아 여름성경학교 : 7월 28일(주일)까지, 태장성결교회
- 교육기관(청소년, 어린이, 영유아) 여름행사 후원
 - 강철수 이미라 고정아 김 건 김동오 설수정 김정원 한영숙 김진용 장영희 김춘식 송수진 김춘자 김한수 원신희 박종철 정미숙 박태근 변찬미 신동희 신재희 금은정 안명수 허대순 이철성 오미선 임윤구 조원선 임영희 정외숙 최혁 전주희 한충정 2남전 4남전 2여전 5여전 6여전 7여전
- 공동식사 쌀 대접 : 권기자권사 문미자집사
- 커피 대접 : 문미자집사 천현진집사(생일감사)

▣ 성경 및 헌금 계좌 안내

- 태장성결교회 공식 성경은 [새번역성경]입니다.
- 헌금 계좌번호
 - 입일조,감사,건축 / 농협 213-01-166145, 태장성결교회
 - 예) 입일조-000입, 감사헌금-000감, 건축헌금-000건 주일헌금-000주
 - 선교헌금 / 새마을금고 4315-09-005272-5, 태장성결교회(선교부)
 - 나눔헌금 / 새마을금고 9002-1353-6796-9, 태장성결교회(나눔위)

▣ 목회계획

7.28-8.3	8.4-10	8.11-17	8.18-24
7.29-8.3.담임목사 휴가	4. 청소년헌신예배 5-10. 김재중목사 휴가 7. 도서관회의(노티나무)	11. 선교헌신예배 및 박영호선교사 파송 13. 청년수련회회의	18. 나눔 헌신예배 및 2학기 장학금 전달식 22-24. 청년여름수련회

▣ 봉사위원

구분	7.28	8.4	8.11	8.18
차량 1호	이철성	강대봉	강병린	강대봉
운행 2호	신재희			
주방	34,43,46구역	41,42,44구역	21,23,25구역	22,26,31구역
오후 돌봄	-	장영희 최옥경	설수정 이춘득	김중순 김춘자
청소(화장실)	청년	8여전	2남전	3여전
봉헌	1부: 7.금은정	8.신동희	2부: 7.권혁진	민윤정 8.김지영

십 일 조	강병린 김현영 염정원 조승현	신순복 김홍태 오정우 익명	권도영 김태숙 윤수례	김관섭 남문주 이경중	김나영 박춘식 김지영	김나현 임영희 이미라	김재중 서일원 이순옥	최옥경 최옥희 이영섭	김중순 신예슬 정영자	
감사헌금	강은숙 김창배 윤수례 하외숙	강철규 설수정 안명옥 이미라 5여전	강태운 김순남 김한수 이영섭 익명 4	강호길 김은숙 김홍태 이하민	고재석 김재욱 김태숙 정대영	전희정 김재중 문유익 양수현	권병규 최옥경 박은유 최 혁	김금례 김정원 신재희 전주희	김남섭 한영숙 신현희 최영자	
주정헌금	강대봉	서계녀	구정림	문미자	서금자	안유정	이춘득			
일천번제	황병주									
선교헌금	강병린 김중순 선상이	신순복 김현영 윤계열	강철규 박연출 윤수례	권혁진 서일원 이경중	김관섭 최옥희 김지영	김남숙 신연아 이미라	김남섭 박연출 이순옥	김재욱 안정애 이순옥	김재중 염정원 정영자	최옥경 유기정 전현진
나눔헌금	강병린 최옥경 유기정	신순복 김중순 선상이	권혁진 윤계열	김관섭 이경중 윤수례	김남숙 김현영 이미라	김남섭 박연출 이순옥	김영경 서일원 전명진	김재욱 김재중 조승현	김재중 염정원 전현진	최옥경 최옥희 전현진
건축헌금	강병린 김중순 이미라	신순복 김진형 이순옥	권도영 김현영 이영섭	권혁진 서일원 채민병	김남숙 최옥희 천현진	김영숙 김재욱 유혜순	김재중 염정원	김재중 윤계열	최옥경 윤수례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00
	2부 오전 11:00	금 요 저 녁 기 도 회	4금 오후 8: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포 에 버 예 배	목 오전 11:30
수 요 저 녁 예 배	오후 7:15	구 역 장 교 육	수 오전 5:30
주일 영유아예배	오전 11:00		수 오후 8:20
주일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전 도 모 임	토 오전 10:50
주일 청소년예배	오전 11:00	구 역 모 임	구역별 별도시간
주일 청 년 예 배	오후 1:00	주 말 교 회 청 소	기관별 별도시간

▣ 섬기는 분들

담 임 목 사 :	김동오	사무장로 :	김인택 신재희 김한수
명 예 목 사 :	채수환	원로장로 :	박병기
부담임목사:	김재중	명예장로 :	황호운 김성제
청소년간사:	강호길	은퇴장로 :	김정원
선 교 사 :	황느헤미야 임에스더 (T국)	찬양지휘 :	고재석
	박에덴 베들레헴 (M국)	반 주 :	원신희 변찬미 사공수인
	최용락 이민숙 (K국)		신지혜 김나영 박하영
	박종민 이인덕 (T국)		이하민 이하영
	지영환 김희수 (V국)	협력교회 :	가평다사랑 귀은 서원주
	최경민 김은진 (G국)		영동 주님의 주사랑
협 력 사 역 :	강원코칭넷 DPA 강원칼넷		주비전스토리 한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아이행복마을		
	북원노인종합복지관		

필독서 소감 2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을 읽고”

김한수장로

책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을 읽으며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났다.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정순금권사님은 시골에서 구멍가게(만화 가게, 장난감, 어묵, 삶은 계란, 도너츠 등)를 운영하셨다. 학교 운동회나 소풍날이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학교 앞에 장난감을 펴 놓고 파셨는데, 나는 그 모습이 싫어서 멀리 피해 다녔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어 도 너무 없었다. 부모님을 도와 드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어머니는 가게 쪽방에서 늘 성경을 읽으셨고, 내가 쪽방의 엄마 옆 으로 다가가면 엄마는 늘 읊, 야곱, 예수님 등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해주셨다. 헌금 생활도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배웠다. 엄마가 조금씩 돈을 모았다가 특별 헌금을 하시는 모습, 늘 좋은 것이 있으면 주의 종 목사님께 섬기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새벽예배를 비롯해 예배를 철저히 지켜 드리는 모습, 모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던 모습,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주시고, 전도하시는 모습,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모습 등. 생각해보면 우리 전 가족은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 또한, 친척들도 직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책을 읽으며 인생의 역경 장면에서 많이 공감되었다. 나 또한 자녀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사모하는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꼭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는다. 모든 면에서 오순삼권사님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 모습 같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몇 번이고 눈물 흘리며 읽었다.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네요. 엄마.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요. 어머니가 걸어오셨던 삶이 기도였다는 것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사랑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